

## 화! 화!! 화!!! - 세 가지 화에 대한 계시

- 읽을 말씀 계 8:13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광야로 도피한 여인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세 가지 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먼저 1-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7-12).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13)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화는 무엇일까요?

## (1) 첫째 화 - 다섯째 나팔 재앙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계 9:1-11). 이 재앙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으로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황충의 정체를 인간과 짐승의 특성이 결합된 초자연적인 존재로 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마귀 떼인데, 이마에 인 맞은 십사만 사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섯 달 동안 죽고 싶을 만큼의 심한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첫째 화입니다.

## (2) 둘째 화 - 여섯째 나팔 재앙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재앙입니다(계 9:12-21). 이 재앙에 대해 성경에는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한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악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 세계대전입니다. 유브라데라는 이름 때문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계 16:12-16)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데도 이 전쟁으로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대전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대량살상은 구속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인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 완악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화입니다.

### (3) 셋째 화 - 일곱째 나팔 재앙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계 11:15-18).**”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첫째 화나 둘째 화와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남아 있는데 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종말인 듯한 표현이 나오지? 그리고 왜 내용이 화 같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1-11). 작은 두루마리의 주 내용은 대환난입니다. 9절에서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난에 대한 계시가 전 삼년 반에 대한 계시보다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환난을 잘 예언할 수 있도록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10)라는 구절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입에 꿀 같이 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시 119:103), 배에서는 쓰게 된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소화하고 보니 대환난 때 성도들이 당할 박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일곱째 나팔을 뜬금없이 언급한 것일까요? 일곱째 나팔과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난과 재림을 통한 완전한 심판이 셋째 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7)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보통 사도들과 연관이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라고 했으므로 종말에 대한 예언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는 다니엘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뜻하고, ‘복음’ 은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므로 재림을 가리킵니다(롬 1:2).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 예언한 것도 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롬 2:16). 또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복음의 내용 중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나 부활 혹은 승천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뜻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비밀입니다(살후 2:7, 계 17:5, 7).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이고 부활에 대한 것도 비밀입니다(고전 15:51). 그런데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인봉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비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루어질 비밀은,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와 그 내용이 겹쳐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작은 두루마리에 나오는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10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은 다른 나팔 재앙과 달리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대환난 전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장은 대환난이 도래하기 전이므로 나팔을 불면 안 되고 불려고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11장 15절에서는 드디어 일곱째 나팔을 불니다. 그 이유는 11장 서두에 성전을 척량하고 마흔두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대환난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환난 이후가 주

내용인 작은 두루마리가 14절 후에 열립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 15절에서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아직 일곱 대접이 남아있는데 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종말인 듯한 표현이 나오지?’ 라는 의문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즉 일곱째 나팔은 대환난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괄적으로 그 절정을 다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 화 같지가 않지?’ 라는 의문이 풀립니다. 일곱 번째 나팔 즉 셋째 화는 그 내용이 작은 두루마리에 나오는 대환난 및 재림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술하기 전에 하이 라이트를 송영으로 만들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15).

대환난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완전히 접수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18절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의 내용(11:14-19)은 일종의 송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후 12-19장까지는 그 과정인 대환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나팔의 위치는 물론 그 내용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 ● 나눔과 적용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분 앞에서 사는 자인지 돌아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양심을 굳건하게 지켰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